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이 명 신*

김 유 순**

초 록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혼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6 영역(사회인구학적, 생애주기적 요인, 경제력, 부부관계 요인,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 이혼시 문제점)의 19변수가 9가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480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있어 남녀 집단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9가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남녀 모델을 비교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9가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배우자의 부정, 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 경제 무능력, 성적인 문제, 배우자의 문제행동, 시댁/처가와와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중 배우자의 부정을 제외한 8가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있어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모든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있어 여성의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의향은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며, 남녀 모두 이혼의향이 가장 높았다.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4가지 이혼사유별(배우자의 부정, 폭력 및 학대, 성적인 문제,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배우자의 문제행동)이혼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혼에 노출된 경우 5가지 이혼사유별(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 성적인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이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 시댁과의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았으며, 자신 명의로 된 연금을 가진 경우, 4가지 이혼사유별(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문제행동, 갈등 및 불일치, 불만)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남녀 모두 4가지 이혼사유별(성적인 문제, 시댁/처가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이혼의향이 증가되었다. 호주제의 심각성과 이혼관련 법률지식 등 사회제도적 요인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들은 현행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을 많이 느낄수록 부당한 대우 및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있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르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혼전 상담서비스 및 법률 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이혼가족 지원서비스, 이혼중재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재산분할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여성의 경제력, 결혼불만족, 부부간 거리감, 이혼에 노출여부, 이혼관련 법률지식, 재산분할제도,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점

I.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급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혼인하는 부부 대비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995년 18.14%에서 2004년 44.47%로 10년 동안 약 2.5배 증가하였다(이강원, 2005, p1).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 역시 1980년 0.6건에서 2002년에는 3.0, 2003년 3.5로 급등하였으며, 2004년 2.9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2년 OECD 회원

국가 중 2위를 기록하였다(조우경, 2005). 한편, 이혼형태별로 살펴볼 때, 전체 이혼건수 중 협의이혼의 비율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되어 2004년에는 86.25%를 기록했다(이강원, 2005, p2). 이혼사유를 살펴볼 때 1999년 부부 불화가 80.2%로 가장 높았으며, 2004년에도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를 웃돌고 있으며, 이혼사유 중 ‘부부 불화’가 60.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가 14.1%(통계청, 2004)라는 현실은 더 이상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혼사유별 이혼율은 이혼법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파탄주의 이혼사유의 증가에 따른 이혼이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곽배희, 2001, p51).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과 협의이혼의 증가로 과거보다 이혼이 용이해졌으나, 이러한 유형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곽배희, 2001, p12).

이혼가정의 평균 동거기간은 해마다 증가되어 2003년 1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정의 이혼율은 47.7%, 10-20년 미만인 가정의 이혼율은 34.5%, 20년 이상인 가정의 이혼율은 17.8%로 나타났다(통계청).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정의 비율이 82.2%라는 사실은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01년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이혼가정의 70.3%인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15만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혼가정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경아·장영아, 2002, p3).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수도 점증되고 있다. 부모가 있지만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입소사유도 과거와 달리 부모의 사망, 질병, 빈곤에 의한 것보다는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이 중요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오호민, 1999, p1). 시설입소 아동의 부모 중 배우자와의 이혼직후 아동의 시설입소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약 2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호민, 1999, pp.71-72). 이러한 사실은 이혼과정에서

양육책임자 결정문제, 양육비, 생계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생활의 어려움과 양육부담으로 인해 시설에 맡겨지는 이혼가족의 자녀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증가됨에 따라, 자녀양육 문제는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양육비 확보와 친권, 양육권 행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윤덕경·장영아, 2002, p6). 서울가정법원에서 1999년에 처리한 이혼사건 중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는 약 66%였으며, 2001년 가정법률상담소 조사결과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덕경·장영아, 2002, p5).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적소득의 이전마저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의 부담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결정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자녀양육분쟁은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방안,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협력적인 부모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혼한 부부들은 재산권 분리와 부모역할의 재정립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혼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시 한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이혼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혼 후 정서적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은 이혼 가정 자녀들로 하여금 불안감, 불안정성, 또는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하며,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및 학업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해 이혼부부 뿐 아니라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혼과정 및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이혼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사회는 이혼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증가의 원인 및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증가의 원인 및 이혼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혼가족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증되고 있는 이혼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미 이혼한 부부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혼가능성을 예측하고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혼문제의 확산정도를 파악하고자 일반 시민들이 이혼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관련 법률지식 및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사회인구학적 요인, 경제요인,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 부부관계 및 이혼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있어 남녀간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성별에 따라 이혼의향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남녀간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통하여, 이혼발생의 원인 및 이혼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이혼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혼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혼가족지원을 위한 사회 복지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이혼사유 분석

이혼사유의 추이를 살펴볼 때,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문제로 인한 비율도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부부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약 80%로 가장 높았으며, 2004년에도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 특히 부부불화의 내용 중에서 부부간 성격차이(49.4%)가 배우자 부정(7.0%)이나 폭력 및 학대(4.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족간의 불화로 이혼하는 비율도 10%로 나타나, 부부불화 및 가족간 불화로 이혼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이혼 사유

	부부 불화	성격 차이	배우자 부정	정신적 신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건강상 의 이유	경제 문제	기타
1999	80.2					0.9	7.1	11.9
2000	(52.5)	40.1	8.1	4.3	21.9	0.9	10.7	14.0
2001	(56.0)	43.0	8.7	4.7	17.6	0.7	11.6	13.7
2002	(58.1)	44.7	8.6	4.8	14.4	0.6	13.6	13.3
2003	(57.0)	45.3	7.4	4.3	13.0	0.6	16.4	13.0
2004	(60.6)	49.4	7.0	4.2	10.0	0.6	14.7	14.1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전체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재판이혼의 사유 중 유책사유(부정, 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보다 6호 사유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혼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호 사유의

1) 2000년도부터 이혼사유 중 부부불화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신체적 학대로 세분화되었으며, 가족간 불화의 항목이 신설됨.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무능력, 성적인 문제, 도박, 주벽, 빚 등 배우자의 개인적 문제, 시댁 및 처가와의 마찰 등 대인관계 갈등요인, 무관심, 무시, 불신, 애정상실, 대화단절 등 부부관계의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만웅, 2004, p32). 이혼사유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점차 성격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대화단절 및 무관심, 애정 상실 등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된 항목들이 증가되고 있어 부부관계 및 결혼의 질이 이혼결정과정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주홍, 2002, p52).

한편, 외국의 이혼사유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17년간의 전국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매토와 프레비티(Amato, P.R. & Previti, D., 2003, p615-616)는 배우자의 부정, 폭력 및 학대, 음주 및 약물사용, 성격적 문제, 의사소통 및 애정의 결여, 가정의 의무소홀, 경제문제, 건강문제, 외부가족의 간섭, 성격차이, 갈등, 불만족, 불행 등이 주요한 이혼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 및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 폭력 등 특정한 위기적 사건, 배우자의 문제행동 등 개인적 문제, 또는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문제가 표출되거나, 부부간 갈등 및 불일치, 불만 등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의 원인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연구(곽배희, 1993, p118)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 폭력 등 특정한 위기적 사건, 또는 배우자의 주벽, 낭비벽, 도박 등의 행동문제 등 구체적인 사건이 이혼의 사유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이혼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혼사유들은 이혼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잠재적 문제가 있던 부부의 이혼결정에 부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주혜주, 2004, p126). 곽배희(1993, p118)는 이러한 사건들이 부부간 갈등을 유발시켜 이혼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이혼을 지연 또는 억제시키는 요인이 발생해 이혼의도가 보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갈등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거나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날 때 결국은 이혼을 결

심하게 된다고 이혼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2.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혼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이혼의 원인 및 이혼예측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혼예측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계층, 인종, 초혼연령 등 사회구조적 또는 생애주기적 요인을 이혼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심리적 접근은 부부갈등관리 등 결혼생활의 상호작용, 또는 성격적 특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Amato & Previti, 2003, p602). 커덱(Kurdek, L.A., 1993, p223)은 이혼을 예측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적 성격특성, 상호의존성, 부부간 불일치 등 다양한 요인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1) 성별

Amato와 Previti(2003, p615-616)는 성별에 따라 이혼사유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 음주 및 폭력 등 주로 배우자의 잘못을 이혼사유로 보는 반면, 남성은 의사소통의 부족 등 부부관계의 문제를 주요한 이혼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Amato와 Previti(2003, p615-616)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신체적 학대 및 약물남용시 이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자녀의 존재는 부인으로 하여금 결혼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제안하는 역할에서도 성차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 및 별거 제의자가 부인인 경우 66.7%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이혼제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이혼 제의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외국의 경우에도 결혼생활의 청산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관계의 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Heaton & Blake, 1999), 또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경우(Spanier & Thomson, 1987) 이혼을 제안하게 된다(Sweeney, 2002, p421 재인용).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할 때 남성은 종종 불만을 표현하는 반면, 여성은 종종 관계에서 벗어나길 선택하는데,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여성들이 전통적 성역할 등으로 인해 결혼관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weeney, 2002, p421). Kurdek(1993, p240)은 이혼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역할은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의 정도, 또는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인구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 상호의존성, 부부간 불일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2) 생애주기적 요인

Amato와 Previti(2003, p606-607)는 결혼 연령과 결혼지속기간 등의 생애주기적 요인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Amato와 Previti(2003, p606-607)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사람들은 상호양립 불가능, 가치관 갈등, 성격차이 등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미성숙 및 불안정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정착되기 힘들기 때문에 마침내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히튼(Heaton, T.B., 2002: 405) 역시 초혼 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이혼율이 감소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초혼 연령은 비선형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2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초혼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혼율이 증가되었으나, 20세 이후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율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eaton, 2002, p405). 한편, Amato와 Previti(2003, p606-607)는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이혼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이 24.67%, 5-10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이 23.1%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 한편, 가트맨과 레빈슨(Gottman, J.M. & Levenson, R.W, 2002, p83-84)은 14년간의

중단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를 살펴볼 때 이혼할 수 있는 고비가 두 번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혼 후 첫 7년 이내에 이혼하는 부부는 대체로 매우 폭발적이며 격렬한 감정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년에 이혼하는 부부는 상당히 중립적이거나 거의 감정표현이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혼시기가 감정표현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생애주기적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Kurdek(1993, p223-224)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생활에 대한 역할수행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스트레스적 사건이 누적됨에 따라 이혼의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모두 30대의 이혼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의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통계청, 2003), 조혼 이혼이나 황혼 이혼 보다는 30-40대의 이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소득수준은 결혼의 성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mato와 Previti (2003, p605-606)는 교육이 이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교육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및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좀더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Amato와 Previti (2003, p606)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도구적 이유로 이혼하는 비율이 줄어들며, 표현적, 관계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비율이 증가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해 이혼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Heaton(2002, p406)역시 교육이 이혼의 증가와 감소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결혼을 유지시킬 수도 있으나 한편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4) 여성의 경제력과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들이 취업을 통하여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이혼을 결심하기 쉬운 여건을 제공하여 이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White, 1990; 이주홍, 2002, p77재인용)도 있으나, 여성의 취업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ayer와 Bianchi(2000)는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여성의 취업이 이혼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Schoen et al, 2002, p646 재인용). 한편, South(2001)의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여성의 취업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choen et al., 2002, p646 재인용).

쇼엔과 동료들(Schoen et al., 2002, p643)은 여성의 취업과 이혼의 위험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전역의 가족 및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Schoen과 동료들(2002, p656)은 여성의 취업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들의 행복수준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부부가 모두 행복할 때, 부인의 취업은 이혼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지만, 한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이혼의 위험이 증가되며, 부부 모두 행복하지 않을 때, 이혼의 위험이 아주 높았다. Schoen과 동료들(2002, p658)은 여성의 취업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대안,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의 경우 이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가정의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에 따라 이혼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확보는 가정내 권력을 증가시키고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가능하게 하여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Heaton, 2002, p406).

5) 부부관계 요인

(1) 결혼불만족과 부부간 거리감

이혼에 이르게 하는 요인 중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Gottman(1993, 1994)은 부정적인 태도와 거리를 두는 행동이 결혼의 불안정과 결혼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Pasley et al, 2001, p6). Gottman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줄이려는 헛된 노력은 부부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부정적 상호작용패턴을 만들어 가게 되며, 마침내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행동으로 이어진다(Pasley et al., 2001, p10 재인용).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결혼불만족과 결혼불안정성이 증가되며,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증가된다(Pasley et al., 2001, p14). Gottman과 Levenson(2002, pp.91-92)은 중년이후에 이혼하는 부부는 갈등 상황 속에서 극히 중립적인 감정표현을 보이는데, 이러한 감정표현은 활기 없고 기본적 애정이 결여된 결혼생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은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한 결혼에 대한 실망감과 환멸이 중년의 위기와 맞물릴 때 중년기의 결혼불만족이 고조되며 부부간 거리감 및 소외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Steinberg와 Silverberg(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Gottman & Levenson, 2002, p92 재인용). 결혼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트맨과 실버(Gottman, J.M. & Silver, N., 1999, p.48, p.63, pp.80-81)는 부부가 서로의 세계에 대해 친밀하고 익숙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애정과 감탄을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서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부부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결혼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 부부관계에서의 개인적 권력(상호 영향력)

Kurdek(1993, p.239)은 이혼이 결혼 당시의 개인적, 부부관계 요인 뿐 아니라, 결혼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적, 부부관계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사회인구적 특성, 개인적 성격특성, 상호의존성, 부부간 불일치의 모든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Rusbult(1983)는 적어도 한 배우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경우 결혼의 안정성이 낮아지며, 부부관계의 헌신 및 몰입정도는 결혼만족도, 부부관계에 대한 기여(투자), 다른 매력적 대안의 존재(부부관계 외에서 친밀감, 정서적 관여 등 주요 욕구의 충족 가능 여부)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보았다(Kurdek, 1993, p.224 재인용). 상호의존 정도에 차이가 있는 부부들은 주요한 부부문제에 대해 생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헌신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Christensen & Shenk, 1991; Kurdek, 1993, p.225 재인용), 상호의존 정도가 낮을수록 결혼외해 및 이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Kurdek, 1993, p.238). 이러한 상호의존도와 상호헌신의 정도는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다. Gottman과 Silver(1999, pp.99-104)는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력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결혼외해의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개인적 권력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개인적 권력이란 부부관계에서 애정, 상호존중, 정서적 지지를 통해 상대방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고 필요로 할 때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명신, 2002, pp.165-166).

(3) 가치관 및 태도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는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의식변화에 남성의 가치관 및 의식 변화가 따르지 못할 때, 가치관의 차이는

부부간 갈등 및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만웅, 2004, p.35). 성별화된 역할에 대한 믿음체계가 부부간 불일치 및 부부문제에의 원인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Guilbert와 동료들(2000)은 여성의 경우 양성평등적 신념은 부부관계에서 부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결혼불안정성을 경험하지만, 남성은 성역할 태도에 의해 결혼안정성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Pasley et al., 2001, p.16 재인용). 한편, 양성평등적 태도를 지닌 부인은 보다 높은 결혼불안정성을 경험하며(Amato & Booth, 1995), 남편보다 부인이 더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 이혼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 Caldwell, 1987; Pasley et al., 2001, p.16 재인용). 부부관계에서 만족도와 헌신의 정도가 낮을수록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별화된 행동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무시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혼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ley et al., 2001, p.20).

6) 사회제도적 요인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의 한 요인으로 이주홍(2002, pp.25-33)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외에 재산분할권의 신설, 공동 친권 및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가족법 등 법제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권의 신설, 공동 친권 및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가족법이 실제로 이혼율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할은 이혼 사후에 이루어지며, 분할할 만한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만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웅, 2004, pp.33-34). 가족법의 개정으로 과거보다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혼율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은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이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개인들의 이혼의도

및 이혼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이혼율 급상승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혼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될수록 결혼안정성이 증가되고 이혼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다 엄격한 이혼법을 제안하도록 하였다(Bougheas & Georgellis, 1999, pp.489-490). Bougheas와 Georgellis(1999, pp.495-496)는 결혼기간 중 배우자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감에 따라 결혼을 지속할지 이혼할지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을 위한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혼에 따르는 비용이 이혼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7)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

이혼과 더불어 이혼부부들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시 한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이혼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혼 후 정서적 적응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전업주부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는데,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병행할 경우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호주제 하에서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성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혼시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및 자녀양육시 한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이혼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 등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더라도 이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혼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이 이혼의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혼을 생각하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이 이러한 지연요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주홍, 2002, pp.78-79).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현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과 현 결혼생활에 대한 다른 대안 등의 촉진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된다. 스위니

(Sweeney, 2002, pp.413-414)는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하는데 대한 어려움(장애)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다른 매력적 대안이 없는 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Becker(1981)역시 결혼생활외의 대안은 이혼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Sweeney, 2002, p.414 재인용). 결혼의 지속과 이혼에 따르는 비용과 이득을 비교해보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Sweeney, 2002, p.414).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경제력, 부부관계요인, 사회적 요인 및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2>).

<표 2>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변 수
사회 인구학적 요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당 소득수준
생애 주기적 요인	결혼연령, 결혼기간
경제력	취업여부, 연금명의 여부
부부관계 요인	개인적 권력, 결혼 불만족, 부부간 거리감, 양성평등 의식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	이혼에 노출, 호주제의 심각성, 이혼관련 법률지식,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	경제적 문제, 법적인 문제, 한부모 역할수행, 사회적 편견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이혼가능성을 예측하고 이혼사유별 이혼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표집하기 위해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및 서비스판매직, 공무원, 교사, 기타(전업주부) 등 7가지 직종군으로 나누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 도시를 4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동일한 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각 직종별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목적표본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48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직종별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의 분포

직 종	내 역	설문조사 대상자	응 답 자		
			남	여	계
전문직(교수, 의사 등)	병원(4), 대학(2)	100	37(24.50)	38(16.17)	75(19.43)
관리직 및 사무직	은행(3), 회사(1)	80	48(31.79)	20 (8.51)	68(17.62)
교사	중·고등학교(4)	40	11 (7.28)	11 (4.68)	22 (5.70)
공무원(세무소, 우체국)	세무서(1),우체국(2)	30	16(10.60)	0 (0.00)	16 (4.15)
생산직	공단내 회사 (3)	40	0 (4.63)	13 (5.53)	20 (5.18)
자영업 및 서비스판매직	상점 및 요식업소	90	16(10.60)	56(23.83)	72(18.65)
전업주부	도시전반 (4지역)	100	0 (0.00)	81(34.47)	81(20.98)
기타			16(10.60)	16 (6.81)	32 (8.29)
합 계		480	151(39.12)	235(60.88)	386(100)

설문조사는 2003년 12월 15일에서 2004년 1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11명의 설문조사원들이 각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480명 중 총 386명이 응답하여 80.4%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을 살펴볼 때, 남성이 39.12%, 여성이 60.88%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직종을 살펴볼 때, 전문직이 약 20%, 관리직 및 사무직 17.62%, 교사 및 공무원이 약10%로 전반적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약 50%에 달하였다. 남성응답자의 약75%, 여성의 약30%가 화이트칼라 직종에 해당하였다. 한편, 여성응답자의 약 35%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분석방법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있어 남녀 집단의 평균치 비교를 위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AS 10.0 버전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생애주기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연령 및 결혼시 연령, 현재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을 조사하였다. 가구당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한달 총 수입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1)에서 대학원졸업(6)까지 6카테고리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2) 경제력: 응답자의 경제력은 ‘취업여부’와 ‘연금여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취업 여부’는 취업 중인 경우, 미취업시에는 0으로 점수화하였다. ‘연금여부’는 응답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아닌 경우는 0으로 점수화하였다.
- 3) 개인적 권력 (3문항):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조언, 사랑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개념화되었으며, 개인적 권력을 측정하기 위해 Personal power scale에서 3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²⁾.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권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를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로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807, 여성의 경우 0.807이었다.
- 4) 결혼 불만족 (3문항): 현재의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1997)의 Index of marital satisfaction에서 2문항, Lee(1978)

2) 개인적 권력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Fleishman(1957)의 Supervisory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에서 1문항을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2문항은 연구자 자신이 개발하였다.

의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1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³⁾.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를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로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768, 여성의 경우 0.825였다.

- 5) 부부간 거리감 (8문항): 부부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pstein과 동료들 (1983)이 개발한 Family Assessment Device에서 6문항⁴⁾, Tavitian과 동료들(1987)이 개발한 Family Functioning Scale에서 2문항⁵⁾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857, 여성의 경우 0.904였다.
- 6) 양성평등의식(3문항): 가정내 의사결정, 가사 및 경제적 책임분담에 있어 부부간 평등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고자 Gump(1972)⁶⁾, Scanzoni(1979)⁷⁾, Brogan와 Kutner(1976)⁸⁾가 개발한 성역할태도 척도에서 각 1문항씩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알파 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483, 여성의 경우 0.689였다.
- 7) 이혼에 노출여부(1문항): 이혼에 노출여부는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점수화하였다.

3)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vol.1, p.121, edited by Corcoran and Fischer(2000), N.Y.: Free Press와 "Marriage and morale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pp.131-139 참조.

4)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9, pp.171-180 참조

5)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 pp.191-204 참조.

6) "Sex rol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8, No.2, pp.79-91.

7) "Social process and power in familie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pp.295-315, N.Y.: Free Press.

8)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pp.31-40.

- 8) 호주제의 심각성 (2문항): 현행 호주제 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재혼시 자녀의 姓문제와 이혼시 자녀의 호적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호주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898, 여성의 경우 0.847였다.
- 9) 이혼관련 법률지식 (7문항): 부부재산제도 및 이혼시의 재산분할권 및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법률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1, 부정확한 경우 0으로 점수화하여, 전혀 법률지식이 없는 경우(0점)에서 최대 정확한 지식을 지닌 경우(7점)로 합산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관련 법률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10)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4문항): 현행 재산분할제도 (①부부공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②분할대상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 ③배우자의 재산처분가능성, ④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될 가능성)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787, 여성의 경우 0.770이었다.
- 11) 경제적 문제(2문항): 이혼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문항 (생활비 조달 및 취업의 어려움)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시 경제적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851, 여성은 0.921이었다.
- 12) 법적인 문제(7문항): 이혼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①재산분할 및 위자료확정, ②친권확정, ③자녀의 호적, ④양육비확정, ⑤양육비지급, ⑥면접교섭권, ⑦친권·양육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시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

의 경우 0.939, 여성의 경우 0.901이었다.

- 13) 한부모 역할수행(3문항): 이혼 후 한부모 역할수행 (①한부모로서의 역할수행, ②자녀양육부담증가, ③훈육부담의 증가)에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한부모로서의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874, 여성의 경우 0.828이었다.
- 14) 사회적 편견(2문항): 이혼가족자녀 및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의 정도는 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867, 여성의 경우 0.838이었다.
- 15) 배우자의 부정(1문항):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의 이혼의향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16) 부당한 대우(2문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을 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926, 여성의 경우 0.905였다.
- 17) 폭력 및 학대(2문항):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을 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844, 여성은 0.901이었다.
- 18) 성적인 문제(2문항): 배우자의 이유 없는 성교거부 및 성적불능 등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하고 자하는 의향은 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804, 여성의 경우 0.867이었다.

- 19) 경제적 무능력(1문항):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할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20) 배우자의 문제행동(6문항): 배우자의 사치 및 낭비벽, 알콜, 약물, 도박 등의 중독문제, 카드남용 및 가출행동 등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은 6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942, 여성의 경우 0.960이었다.
- 21) 시댁/처가와와의 문제(5문항): 배우자의 가족과의 문제 및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은 5문항(①지속적인 경제적 도움 요청, ②지나친 간섭, ③부부의 사생활 침해, ④금전적 지원의 격차, ⑤의논없이 금전적 지원)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및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향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 결과, 남성의 경우 0.924, 여성의 경우 0.953이었다.
- 22) 갈등 및 불일치(5문항): 배우자와의 의견불일치 및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은 5문항(①자녀양육에 대한 의견불일치, ②사사건건 불일치, ③신앙, ④금전, ⑤가사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887, 여성의 경우 0.902였다.
- 23) 배우자에 대한 불만(8문항):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8문항(배우자의 비난 및 불평불만, 의심 및 구속, 말이 통하지 않음,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 무관심 및 무시, 배우자의 지지결여 등)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Cronbach 알파 신뢰계수 산출결과, 남성의 경우 0.949, 여성의

경우 0.962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과 가구당 월소득에 있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 평균 39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소득은 남성(350만원)이 여성(328만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결혼연령(28.9세)이 여성(26.1세)보다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여성(13.6년)이 남성(10.7년)보다 길었다.

<표 4>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변수	집단	N	Mean	Std Dev	T	DF	Prob> T
연령	남	151	39.636	7.766	-0.06	382	0.9561
	여	234	39.682	8.313			
결혼 연령	남	151	28.940	2.525	10.08	381	0.0001***
	여	232	26.164	2.703			
결혼 기간	남	151	10.768	7.931	-3.17	359	0.0016**
	여	234	13.611	9.507			
가구당 월소득	남	140	350.07	187.57	1.11	358	0.2689
	여	222	328.28	178.47			

한편,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 볼 때, 남성의 77.48%와 여성의 51.91%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21.19%와 여성의 44.26%는 중·고등학교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남성의 0.66%와 여성의 3.83%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90%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99%이상이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변 수		남	여	계
교육 수준	무 학	2(0.66)	2(0.86)	4(1.04)
	초 등 학 교	0(0.00)	5(2.15)	5(1.30)
	중 학 교	2(1.32)	21(9.01)	23(5.99)
	고 등 학 교	30(19.87)	83(35.62)	113(29.4)
	대 학 교	72(47.69)	93(39.91)	165(42.9)
	대 학 원	45(29.80)	29(12.45)	74(19.27)
자녀 유무	1 명 이 상	132(89.19)	211(91.74)	343(90.74)
	없 음	16(10.81)	19(8.26)	35(9.26)
가족 형태	핵 가 족	134(99.26)	205(100.0)	339(99.71)
	대 가 족	1(0.74)	0(0.0)	1(0.29)

2. 이혼에 대한 견해 및 이혼에의 노출정도

1) 이혼 증가의 원인

최근 들어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의 21.19%는 ‘가정의 중요성 및 의미상실’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19.87%),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19.21%)를 이혼의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보았다. 반면, 여성응답자의 21.28%는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녀간 의식의 차이’(19.57%), ‘가정의 중요성 및 의미상실’(16.60%)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남성들은 이혼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의 중요성 및 여성역할의 변화를 중시하는 반면,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집단 보다는 개별성의 중요성, 남녀간 인식변화의 차이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이혼 증가의 원인

이혼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	남	여	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30(19.87)	37(15.74)	67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4(2.65)	13(5.53)	17
남녀간 의식의 차이	18(11.92)	46(19.57)	64
성 개방적 풍토	8(5.30)	11(4.68)	19
가정의 중요성 및 의미상실	32(21.19)	39(16.60)	71
개인주의 성향 증가	29(19.21)	50(21.28)	79
대화기술 및 갈등해결기술 부족	22(14.57)	32(13.62)	54
기타	8(5.30)	7(2.98)	15
계	151(100.00)	235(100.00)	386

 $\chi^2=8.5351$ $df = 7$ $p=0.2878$

2) 이혼 가능성에 대한 견해

응답자 자신이 이혼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40.28%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18.14%에 불과했다. 여성들은 ‘이혼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나도 이혼할 수 있다’가 34.07%로 가장 많았고,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가피하게 이혼한다’가 30.09%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약 60%와 여성의 80%이상이 자신도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혼 가능성에 대한 견해

자신의 이혼 가능성에 대한 견해(%)	남	여	계
이혼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나도 이혼할 수 있다	22(15.28)	77(34.07)	99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	29(20.14)	40(17.70)	69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가피하게 이혼한다	35(24.31)	68(30.09)	103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58(40.28)	41(18.14)	99
계	144(100.00)	226(100.00)	370

$\chi^2 = 29.0553$ $df = 3$ $p < 0.0001$

3) 이혼 의도

이혼 의도를 지닌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 약 51.72%가 이혼의도를 지닌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37.08%만이 이혼의도를 지닌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약 6.27회, 남성은 약 3.49회 정도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이혼 의도

	예	아니오	계	최근 3년간 이혼의도					
				N	Mean	Std.Dev.	T	DF	Prob> T
남	56(37.08)	95(62.91)	151	149	3.4966	16.0137	-1.46	362	0.1443
여	120(51.72)	112(48.28)	232	225	6.2711	20.5374			

$\chi^2 = 7.8913$ $df = 1$ $p = 0.005$

4) 이혼상담의 대상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구와 상담하였는가를 질문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남성의 60.0%와 여성의 53.57%는 ‘아무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혼의사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논할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가족 및 친구와 상의한다’(22.86%)와 ‘법률상담가를 찾아간다’(11.43%)라고 응답하여, 여성의 약 34%는 이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이혼상담의 대상

이혼 상담 대상(%)	남	여	계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4(5.33)	10(7.14)	14
법률 상담가를 찾아간다	5(6.67)	16(11.43)	21
가족 및 친구와 상의한다	8(10.67)	32(22.86)	40
아무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	45(60.00)	75(53.57)	120
기타	13(17.33)	7(5.00)	20
계	75(100.00)	140(100.00)	215

$$\chi^2 = 13.6278 \quad df = 4 \quad p = 0.0086$$

7) 이혼에의 노출정도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69.94%가 ‘있다’고 대답했다. 남성의 76.35%, 여성의 65.52%는 아는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여, 70% 안팎의 남녀 응답자들이 이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의 유무(%)		계
	예	아니오	
남	113 (76.35)	35(23.65)	148
여	152 (65.52)	80(34.48)	232
계	265 (69.94)	115(30.26)	380

$$\chi^2 = 5.0255 \quad df = 1 \quad p < 0.0250$$

3. 이혼관련 법률지식 및 재산관리 실태

1) 이혼관련 법률지식

이혼결정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제적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성의 34%와 여성의 26.5%만이 우리나라에서 부부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대다수(73.5%)는 부부별산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지식의 결여로 이혼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표 11> 이혼관련 관련 법률지식

		예(%)	아니오(%)	χ^2	df	p
우리나라는 부부간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부공동재산 제도이다	남	66.0	34.0	2.478	1	0.115
	여	73.5	26.5			
결혼시 각자가 가져온 별도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남	57.05	42.95	3.950	1	0.046*
	여	67.09	32.91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남	37.67	62.33	9.437	1	0.002**
	여	53.88	46.12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남	76.35	23.65	6.607	1	0.008**
	여	86.84	13.16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남	55.03	44.97	7.278	1	0.007**
	여	68.67	31.33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남	40.27	59.73	5.712	1	0.016*
	여	52.81	47.19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남	42.57	57.43	10.376	1	0.001**
	여	59.48	40.52			

* 진한 숫자로 표시된 곳은 이혼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임.

결혼 당시 부부 각자가 가져온 별도의 재산이 부부별산제도에 의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남성의 57.05%와 여성의 67.09%가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별산제도에 의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의 37.67%와 여성의 과반수 정도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 중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이 부부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남성 76.35%; 여성 86.84%)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결혼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남성의 55.03%와 여성의 68.67%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성의 59.73%와 여성의 47.19%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40%와 여성의 약 50% 정도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발생시 법률지식의 미비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42.57%와 여성의 59.48%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평가

현행 재산분할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행 재산분할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부부공유 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여성

(3.26)은 남성(2.82)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여성(3.58)은 남성(3.20)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재판기간이 길어 배우자가 이 기간동안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여성(3.65)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여성(3.52)은 남성(3.29)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

	집단	N	Mean	Std Dev	T	DF	Prob> T
부부공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할 수 있다	남	148	2.8243	1.0348	-4.25	378	0.0001***
	여	232	3.2672	0.9612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남	147	3.2040	0.9504	-3.75	376	0.0002***
	여	231	3.5844	0.9693			
재판기간 중 배우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남	148	3.3175	1.1129	-2.88	377	0.0043**
	여	231	3.6536	1.1078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다	남	148	3.2972	1.0132	-2.23	377	0.0264*
	여	231	3.5281	0.9636			

3) 재산명의 내역

응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살펴본 결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75.88%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부인의 명의로 된 경우는 13.28%였고, 공동명의로는 5.4%에 불과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

의 명의는 62.18%, 부인의 명의는 18.49%였으며, 공동명의로 된 경우는 6.72%였다. 토지의 경우, 남편의 명의는 72.08%, 부인 명의는 13.64%였고, 공동명의로 된 경우는 3.89%에 불과했다. 자산형성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남편 명의는 68.71%, 부인의 명의는 15.65%였으며, 공동 명의로 된 것은 6.12%였다. 한편, 통장의 명의는 남편이 44.92%, 부인이 34.46%로 다른 재산의 경우보다 비교적 부인의 명의 비율이 높았다. 공동명의로 된 통장은 16.95%로 나타나, 다른 재산의 경우보다 공동명의로의 비율이 높았다. 재산의 명의 내역을 살펴 본 결과, 통장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명의는 60% 이상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부인의 명의로 된 경우는 20%이하였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6%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부별산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재산의 소유 실태는 이혼이 발생할 경우 부인들이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재산 명의의 내역

재산 목록	남편 사례수(%)	아내 사례수(%)	공동 명의 사례수(%)	자녀 사례수(%)	기타 사례수(%)	계 사례수(%)
거주 주택	280(75.88)	49 (13.28)	20 (5.40)	2 (0.54)	18 (4.90)	369 (100)
상가	74 (62.18)	22 (18.49)	8 (6.72)		15 (12.61)	119 (100)
토지	111(72.08)	21 (13.64)	6 (3.89)	1 (0.65)	15 (9.74)	154 (100)
자산 주택	101(68.71)	23 (15.65)	9 (6.12)	2 (1.36)	12 (8.16)	147 (100)
통장	159(44.92)	122(34.46)	60 (16.95)		13 (3.67)	354 (100)

4. 성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경제력

연령, 결혼 연령, 결혼기간 및 가구 월소득,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다루었다.

경제력을 비교해 볼 때, 남성의 97.9%가 취업 중이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64.4%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75.5%는 자신명의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은 58.9%정도만이 자신명의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성별 경제력 비교

변 수		남	여	계	χ^2	df	p
취업 여부	있음	145 (97.97)	145 (64.44)	290 (77.75)	11.080	1	0.0009***
	없음	3 (2.03)	80 (35.56)	83 (22.25)			
연금 여부	있음	114 (75.50)	138 (58.97)	252 (65.45)	11.080	1	0.0009***
	없음	37 (24.50)	96 (41.03)	133 (34.55)			

2)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

이혼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 이혼에의 노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76.35%와 여성의 65.94%가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을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대체로 이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성별 이혼에 노출여부

변 수		남	여	계	χ^2	df	p
이혼에의 노출	있음	113 (76.35)	152 (65.52)	265 (69.94)	5.025	1	0.025*
	없음	35 (23.65)	80 (34.48)	115 (30.26)			

이혼과 관련된 법률지식이 이혼의도 및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부부재산제도 및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비교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체로 이혼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3.65; 여성 3.88). 현행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부담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부담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재산분할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성들은 현행 재산분할제도가 부담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호주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혼시 자녀의 姓문제와 이혼시 자녀의 호적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별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 비교

변 수		남	여	계	χ^2	df	p
이혼에의 노출	있음	113 (76.35)	152 (65.52)	265 (69.94)	5.025	1	0.025*
	없음	35 (23.65)	80 (34.48)	115 (30.26)			
변 수	집단	N	Mean	Std Dev	T	DF	Prob> T
이혼관련 법률지식(7)	남	151	3.650	1.226	-1.87	384	0.0625
	여	235	3.887	1.209			
현행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4)	남	151	12.71	3.166	-4.17	384	0.0001***
	여	235	14.05	3.027			
호주제 문제의 심각성(2)	남	151	6.621	2.384	-5.64	242	0.0001***
	여	235	7.873	1.652			

* 괄호 안의 숫자는 문항의 수임.

3)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평소에 부부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불만족, 부부간 거리감, 양성평등적 의식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평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혼불만족과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양성평등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권력에 있어서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원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과 부부간 거리감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성별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변수	집단	N	Mean	Std Dev	T	DF	Prob> T
개인적 권력(3)	남	151	9.444	1.888	1.66	354	0.0979
	여	235	9.094	2.212			
결혼 불만족(3)	남	151	7.152	2.586	-2.99	384	0.0030**
	여	235	8.025	2.933			
부부간 거리감(8)	남	151	17.491	4.708	-3.08	372	0.0022**
	여	235	19.194	6.121			
양성평등 의식(3)	남	151	8.935	1.128	-3.77	364	0.0002***
	여	235	9.422	1.390			

4)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 경제적 문제, 법적인 문제, 한부모 역할수행 및 이혼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시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4가지 문제 영역에서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든 문제에서 여성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3.455)과 한부모 역할수행(3.378)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3.05)이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2.768)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1.86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대략 2.7)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8> 성별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

변 수	집단	N	Mean	5점척도 평균*	Std Dev	T	DF	Prob> T
경제적 문제(2)	남	151	3.735	1.867	1.722	-8.59	379	0.0001***
	여	235	5.536	2.768	2.389			
법적인 문제(7)	남	151	18.997	2.713	5.398	-4.45	384	0.0001***
	여	235	21.351	3.050	4.853			
한부모 역할수행(3)	남	151	8.333	2.777	3.309	-5.51	384	0.0001***
	여	235	10.136	3.378	3.020			
사회적 편견(2)	남	151	5.547	2.773	2.333	-5.98	384	0.0001***
	여	235	6.910	3.455	2.084			

* 이혼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치를 제시하였음.

5. 성별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비교

1)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

민법 제 840조에 제시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혼인생활 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 이혼사유**(1호-5호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2호 사유)’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사유)’를 제외한⁹⁾ 3가지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을 조사하였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사유)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사유)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와, ‘배우자가 폭력 및 학대행위를 한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9)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이혼사유라는 점에서 응답자간에 편차가 많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2호와 5호 사유를 설문조사시 제외하였음.

<표 19> 성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

변수	집단	N	Mean	5점 척도 평균*	Std Dev	T	DF	Prob> T
1호 사유	배우자의 남	148	3.898	3.898	1.159	-1.13	375	0.2602
	부정 여	229	4.026	4.026	1.012			
3·4호 사유	부당한 남	151	5.847	2.923	2.408	-3.80	384	0.0002***
	대우(2) 여	235	6.766	3.383	2.251			
	폭력 및 남	144	6.451	3.225	2.737	-7.82	241	0.0001***
	학대(2) 여	226	8.522	4.261	2.018			

*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을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치를 제시하였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사유)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3.89; 여성 4.02). 한편, 3호와 4호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에 있어서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의향은 남성(2.923)보다 여성(3.383)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도 여성(4.261)이 남성(3.22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6호 사유로 인한 이혼의향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되어 있다. 최근 6호 사유로 인한 이혼이 급증되고 있으며, 6호 사유는 배우자의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부부관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지닌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에 있어,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이혼의향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은 여성(3.7)과 남성(3.2)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향은 여성(3.092)이 남성(1.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으며, 성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은 남성(2.4)과 여성(2.8)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시댁 및 친정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에 있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가족관계의 문제(지속적 경제적 도움 요청, 지나친 간섭, 사생활 침해 등)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정도는 여성(2.133)이 남성(1.6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은 남녀 모두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배우자와의 갈등 및 불일치(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사사건건 의견불일치, 금전 및 가사분담을 둘러싼 갈등 등)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이혼의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에 있어서도 여성(2.177)의 이혼의향이 남성(1.758)보다 높았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말이 통하지 않음,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 배우자의 무관심, 비난 및 불평불만 등)으로 인한 이혼의향 역시 여성(2.36)이 남성(1.8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 성별 6호사유로 인한 이혼의향

	변 수	집단	N	Mean	5점척도 평균	Std Dev	T	DF	Prob> T
개인	경제적 무능력	남	147	1.680	1.680	0.928	-12.63	372	0.0001***
		여	227	3.092	3.092	1.131			
	성적인 문제(2)	남	145	4.965	2.482	2.112	-3.65	371	0.0003***
		여	228	5.785	2.892	2.114			
	배우자의 문제행동(6)	남	149	19.322	3.220	7.007	-3.89	377	0.0001***
		여	230	22.222	3.703	7.130			
가족 관계	시댁/처가와 문제(5)	남	151	8.264	1.653	4.023	-4.91	379	0.0001***
		여	235	10.664	2.133	5.561			

변 수		집단	N	Mean	5점척도 평균	Std Dev	T	DF	Prob> T
부부 관계	갈등 및	남	151	8.790	1.758	3.974	-4.60	364	0.0001***
	불일치(5)	여	235	10.887	2.177	4.918			
	배우자에	남	151	14.513	1.814	6.434	-5.69	377	0.0001***
	대한 불만(8)	여	235	18.907	2.363	8.710			

6.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결정요인: 남성과 여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6요인(사회인구학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경제력, 부부관계 요인, 사회적 요인, 이혼시 문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누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녀간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단계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1) 배우자의 부정

남성에게 있어 교육수준과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배우자의 부정시 이혼의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부부간 거리감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시 부부관계에서 개인적 권력을 많이 지닐수록 이혼의향이 억제되는 반면,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한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정을 행한 경우에는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남성은 연금이 있거나 이혼에 노출된 경우 이혼의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연금이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부간 거리감, 양성평등의식,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부당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여성들은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폭력 및 학대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남성에게 있어 높은 교육수준과 이혼에의 노출은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요인은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개인적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평등의식은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을 증가시켰으며, 한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지라도 배우자의 폭력 및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적인 문제

남성의 경우 성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감소되었으며, 반면 부부간 거리감과 한부모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불만족은 성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적인 어려움이 클지라도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llegible]

		배우자의 부정	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	성적인 문제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문제행동	시댁(처가)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법률지식	여										
재산분할제 부당성	남										
	여		0.118**				0.498***				
경제적 문제	남					0.167***		0.599***		1.184***	
	여										
법적인 문제	남	-0.053**									
	여		0.115***		0.133***	0.064***	0.390***	0.425***	0.328***		
한부모 역할수행	남	0.132***		0.180**	0.202***						
	여	0.113***		0.204***							
사회적 편견	남					0.061*	1.045***	0.345**			
	여										
모델	남	F	9.20	6.14	13.00	15.71	10.97	12.48	13.97	11.88	14.79
		p	<0.0001	0.0028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R ²	0.2024	0.0780	0.2680	0.3067	0.1829	0.2040	0.2768	0.2101	0.2355
	여	F	17.55	10.42	16.63	21.60	21.96	14.10	33.40	56.99	57.44
		p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R ²	0.1856	0.2268	0.2259	0.2756	0.1591	0.1552	0.3810	0.5146	0.4437

* p<0.05, ** p<0.01, ***p<0.001

5) 경제적 무능력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할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은 결혼불만족이 클수록 높았으며, 이혼에 따르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부부간 거리감이 클수록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았으며, 이혼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 지라도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배우자의 문제행동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감소되지만,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지라도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신명의의 연금이 있거나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을 크게 느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혼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지라도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7) 시댁/처가와와의 문제

남성은 연금을 가진 경우 처가와와의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지라도 처가와 문제가 있는 경우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댁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지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반면, 이혼에의 노출은 시댁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간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시댁 또는 처가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갈등 및 불일치

남성의 경우 이혼에의 노출은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연금이 있는 경우 갈등과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았으며,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경우에도 갈등과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부부간 거리감을 많이 느낄수록 갈등과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성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일치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자신의 욕구를 다른 면에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의향이 억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여유로움은 부부간 갈등과 불일치가 심할 경우 남성에게는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9) 배우자에 대한 불만

남성은 이혼에 노출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클 지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의향이 낮았으나, 자신 명의의 연금을 가진 경우는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부부간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1.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비교: 남성과 여성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경제력이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대체로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4가지 이혼사유별 (배우자의 부정, 폭력 및 학대, 성적인 문제, 배우자 문제행동) 이혼의향이 낮았다. 한편,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았고, 연금이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나 처가와의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연금이 있는 경우 4가지 이혼사유별 (부당한 대우, 배우자 문제행동, 갈등 및 불일치, 불만) 이혼의향이 높았으며, 취업시에는 시댁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았다.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및 불일치,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낮았으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될수록 폭력 및 학대에 의한 여성의 이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여성의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의 부정 등 4가지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교육은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Amato & Previti, 2003, p605; Heaton, 2002, p406)에 제시된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당 소득수준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및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표현적, 관계적 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증가된다는 Amato와 Previti(2003, p606)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및 불일치,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높은 소득수준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일치, 또는 불만이 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자신의 욕구를 다른 면에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만을 회색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는 현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아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수준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뿐 아니라, 이혼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여성의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 여성은 시대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혼하기를 원하며 아울러, 자신명의로 연금이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며, 갈등 및 불일치, 불만으로 가득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신 명의로 연금을 가진 경우 아내나 처가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또는 처가와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할 경우 연금수급분할권으로 인해 재산분할시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여성자신의 경제력과 가구의 소득수준은 이혼의향에 다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및 불일치, 불만으로 인한 이혼의향은 자신명의의 연금이 있는 경우 증가되지만,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경우 여성들은 갈등과 불일치로 가득한 결혼생활을 청산하지만,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결혼을 지속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혼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여성의 경우 취업이나 연금을 통한 경제력의 확보는 분명 여성들에게 부당하거나 불공평, 불만족스런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취업여부보다는 자신명의 연금의 확보는 취업의 안정성 및 미래생활 보장이라는 점에서 이혼결정에 있어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자신이 취업 및 연금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구전체의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 손익평가를 통해 이혼사유별로 이혼의향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력 증가로 이혼이 증가된다는 기존의 견해는 이혼결정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부관계 요인이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간 거리감이 클수록 부부관계의 문제(성적인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또는 시댁 및 처가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부부간 거리감은 여성의 경우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시의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며, 남성의 경우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거리감은 9가지 이혼사유 중 7가지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혼의향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관계 및 시댁/처가와와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 애정 및 친밀

감이 고갈되고 거리감을 크게 느낄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부정적 태도와 거리를 두는 행동이 결혼의 불안정과 결혼의 와해를 가져온다는 Gottman(1994)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불만족은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반면, 여성의 성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남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에서 오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불만족함에도 성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규범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에 관한 문제를 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권력을 많이 지닐수록, 여성의 배우자 부정,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은 낮게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및 학대 같은 위기적 사건을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개인적 권력은 이혼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었다. 여성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배우자 부정, 부당한 대우시 이혼의향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이혼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이혼관련 사회적 요인이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이혼에의 노출여부는 남성의 경우, 5가지 이혼사유별(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 성적인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배우자에 대한 불만) 이혼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 시댁문제로 인한

이혼사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의 어려움을 많이 목격한 경우 이혼의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문제로 인해 이혼가정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호주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재산분할제도 등 현행 이혼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혼의향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혼의 억제요인으로 보았던 호주제의 심각성과 이혼관련 법률지식은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경우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대우 및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혼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혼시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혼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남성의 이혼의향(배우자 부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르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각 사유별 이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혼에 따르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예상할지라도, 3가지 이혼사유별(경제적 무능력, 처가와의 문제, 불만) 이혼의향이 높았다. 한편, 여성은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예상될 지라도 6가지 이혼사유별(부당한 대우, 성적인 문제,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문제행동, 시댁과의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등)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배우자의 부정을 제외한 모든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어떠한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법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여성에게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리어 이혼으로 인해 남성들이 예상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성들이 예상하는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 지라도, 특정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혼할 경우 한부모 역할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예상할 지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및 학대시에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 및 학대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이 더 이상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이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부모가 있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외도 및 폭력 등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한부모 역할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더라도 이혼하고자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의 각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지라도,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문제행동, 처가와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부관계 요인 및 여성의 경제력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관련 법률지식 및 법제도에 대한 견해 등 사회제도적 요인은 이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관련 현행 법제도 및 이혼시 직면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이혼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혼결정에 있어 여성의 경제력과 가구소득 간의 상호영향력,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의 양부모 가정에 대한 절대적 가치의 변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의향이 높은 현실 등을 반영하며 이혼문제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이혼 예방 및 이혼가족지원을 개입방안

1) 이혼전 상담서비스 및 법률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주변에서 이혼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자신도 이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닌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이혼의도를 지녔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결정 과정에서, 이혼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상의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 이혼전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이혼의도와 이혼하고자 하는 생각의 빈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혼사유별 이혼의향도 남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부별산제도 및 재산분할제도 등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률지식의 결여는 이혼을 쉽게 결정하거나,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아울러, 통장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있어 부인명의로 된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는 재산소유실태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하는 재산의 관리 및 공동명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직면하게 될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혼관련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담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스트레스관리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을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개인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에도 가족관계 갈등요인 및 부부관계 갈등 및 불만족 요인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의향이 낮았으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의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부부관계갈등 및 문제점, 가족관계갈등의 해결이 여성들의 이혼의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부간에 느끼는 거리감이 대다수의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부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결혼만족과 개인적 권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갈등과 불공평한 부부관계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보다 친밀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스트레스관리 방안을 교육함으로써 부부간 갈등 및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혼가족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시에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면서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사실은 이혼에 따르는 문제점이 더 이상 이혼을 지연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이러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혼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취업상담 및 알선, 생계비지원, 양육비지급 확인 및 강제징수,

양육권자에게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정문제, 자녀양육을 둘러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한부모 역할수행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이혼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이혼중재서비스의 필요성

현재 협의이혼시 신중한 이혼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개월의 숙려기간과 협의이혼전 상담제도가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전 3시간의 상담을 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강원, 2005:8). 그러나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뿐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방안,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며,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3시간의 이혼전 상담서비스 만으로는 이러한 이혼과정의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혼과정에서의 갈등은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혼 후의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부부 및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위해 이혼과정의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이혼중재서비스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5) 재산분할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재산분할권의 신설, 공동 친권 및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가족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제도의 변혁은 부부들의 실제적인 이혼의향 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권 등 이혼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제도에 내재된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 의한 재산분할제도는 남편명의로 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부재, 남편의 재산처분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긴 재판기간, 재산

분할시 세금납부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금분할수급권이 상실될 가능성 등은 현행 연금분할수급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혼시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는 취업과 연금수급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불만족스런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 원인 및 이혼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을 조사하였다. 이혼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혼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안에 덧붙여, 본 연구에 내포된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혼부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을 조사하였다. 일반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이혼의향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이혼원인 및 이혼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이혼의 원인 및 이혼결정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표집방법으로 목적표본추출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절반 넘게 표집되었고 남성응답자 중 전문직 및 관리·사무직 종사자가 과대 표집되었다. 이러한 표본집단의 편중문제로 인해 지방소도시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이혼사유별 이혼의향, 개인적 권력, 호주제

의 심각성, 이혼관련 법률지식, 재산분할제도의 부당성, 이혼시 문제로 인한 어려움 등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각기 다른 상황 및 집단에 따라서 사용가능할 것인지를 검증하는 교차타당화 과정을 거친 표준화된 척도제작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곽배희 (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만웅 (2004).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호민 (1999). **시설의뢰가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의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경 · 장영아 (2002).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강원 (2005). **이혼상담법제화 발전방향: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서울: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
- 이명신 (2002).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 가사분담, 그리고 역할 갈등,” **여성과 사회복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주홍 (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 민가영 (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조우경 (2005).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과제**. 고시연구사(발행정보).
- 주재선 · 김성익 (2004). **2004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주혜주 (2004). **이혼여성의 이혼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 Amato, P.R. and Previti, D. (2003). People's Reasons for Divorcing: Gender, Social Class, the Life Cours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4, No.5, pp. 602-626.
- Bougheas, S. and Georgellis, Y. (1999). The Effect of Divorce Costs on Marriage Formation and Dissolu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12, pp. 489-498.
- DeKay, M. L., Greeno, C.G. and Houck, P.R. (2002). Searching for a Two-Factor Model of Marriage Duration: Commentary on Gottman and Levenson, *Family Process*, Vol.41, No.1, pp. 97-103.
- Fine, M.A. (1997). Helping Children Cope with Marital Conflict, Divorce, and Remarriage, *Psychotherapy in Practice*, Vol. 3 No.1, pp. 55-67.
- Gottman, J.M. & Silver, N. (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Y.: Three Rivers Press.
- Gottman, J.M. and Levenson, R.W. (2002). A Two-Factor Model for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Exploratory Analyses Using 14-Year Longitudinal Data, *Family Process*, Vol. 41, No.1, pp. 83-96.
- Heaton, T.B. (2002). Factors Contributing to Increasing Marit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3, No.3, pp. 392-409.
- Kingston-Riechers, J.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requency

- of Wife Assault and Marital Dissolution in Canad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4, pp.351-365.
- Kurdek, L.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4, No.2, pp.221-242.
- Kurdek, L.A. and Kennedy, C. (2001). Differences between Couples Who End Their Marriage by Fault or No-Fault Legal Procedur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5, No2, pp. 241-253.
- Pasley, K., Kerpelman, J. and Guilbert, D.E. (2001). Gendered Conflict, Identity Disruption, and Marital Instability: Expanding Gottman's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18, No.1, pp. 5-27.
- Rogge, R.D. and Bradbury, T.N. (1999). Till Violence Does Us Part: The Differing Roles of Communication and Aggression in Predicting Adverse Marital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7, No.3, pp. 340-351.
- Schoen, R., Astone, N.M., Rothert, K., Standish, N.J. and Kim, Y.J. (2002). Women's Employment,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Social Forces*, Vol. 81, No2, pp. 643-662.
- Sweeney, M.M. (2002). Remarriage and the Nature of Divorce: Does It Matter Which Spouse Chose to Leav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3, No.3, pp. 410-440.
- Trost, J.E. (1986). What Holds Marriages Together? *Acta Sociologica*, Vol. 29, No.4, pp. 303-310.
- Zimmer, M. (2001). Explaining Marital Dissolution: The Role of Spouse's Trait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2, No.3, pp. 464-477.

Factors Affecting the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Causes of Divorce: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odels

Lee, Myung Shin (Dept. of Social Welfare, GyungSang Univ.)

Kim, YuSoon((Dep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causes of divorce, and to compare factors that affect women's inclination to divorce with that of men. For this purpose a hypothetical model explaining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life cycle), economic power, marital relationship, socio-structural factors, and the difficulties related to divorce, shows there are nine major factors that cause the inclination to divorce. The nine causes of divorce were extramarital affairs, maltreatment, violence, sexual problems, lack of economic ability, problematic behavior, problems with in-laws, conflicts & disagreement, and discontentment.

Using data collected from 480 men and women from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the hypothetical models were tested concerning the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nine causes of divorce. For data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Men's higher levels of education decreased the inclination to divorce in the cases of four of the divorce causes (extramarital affairs, violence, sexual problems, and problematic behavior) and men's exposure to divorce also decreased the inclination to divorce in the cases of five divorce causes (maltreatment, violence, sexual problems, conflicts & disagreement, and discontentment). Women's employment status increased the inclination to divorce concerning

problems with in-laws. When women have a pension, the inclination to divorce in the cases of four divorce causes (maltreatment, problematic behavior, conflicts & disagreement, and discontentment) was increased. Distance between spouses increased both men's and women's divorce inclination in the cases of four divorce causes (sexual problems, problems with in-laws, conflicts & disagreement, and discontentment). The difficulties related to divorce increased both men's and women's inclination to divorce due to the diverse causes of divorce. On the other hand, socio-cultural factors had little impact on the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causes of divorce.

Based on the findings pre-divorce counseling, legal education, marital therapy and divorce mediation service, as well as reforming divorce laws & pension plans, wer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divorce and to meet the needs of divorcing couples.

Key words: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causes of divorce, women's economic power, marital dissatisfaction, marital distance, exposure to divorce, knowledge of divorce law, unfairness of the asset division law, difficulties related to divorce